

한일정상회담(09.01.12) 주요 내용

2009.10.22

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아소 다로(麻生太郎)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특히 경제 분야의 양국 협력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.

□ 한일 정상회담 개최

- 이명박 대통령은 아소 다로(麻生太郎)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짐 (2009.01.12)
-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현 정부 출범 이후 후쿠다 야스오(福田康夫) 전 총리 때를 포함해 6번째로, 이 대통령과 아소 총리간 양자 회담은 2008년 10월 베이징 아셈(ASEM) 정상회의와 2009년 12월 후쿠오카(福岡) 정상회담에 이어 3번째임
- 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한일관계의 안정적 유지 발전을 위한 협력,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의 평화, 안정을 위한 협력,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예정

□ 키워드

- 셔틀외교

□ 협의 내용

- 세계적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공조 방안 협의
 -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경제협력 수단을 모색, ‘경제 살리기’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은 만큼 ‘경제논의 집중’이라는 서로의

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

- 대일무역역조 개선을 위해 부품소재산업 분야에서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합의
- 중소기업간 교류 확대, 경제분야 협력 협의
 -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
 - 우주·원자력 등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체제 강화
 - * 이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아소 총리가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재계 인사들을 대거 대동해 방한함으로써 경제 분야 성과는 어느 정도 예견
- 기타 대학생 교류를 비롯한 문화·인적교류 확대, 아프가니스탄 재건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에 대해 다양한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

□ 성과

-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이익 증진을 위한 ‘실용외교’에 주력했다는 데 의미
- 독도 영유권과 과거사 문제 등 걸끄러운 정치적 사안은 공식 의제에서 빠짐
- 양 정상은 앞으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수시로 만나 현안을 협의키로 해 ‘셔틀외교’ 복원도 공식화

<참고자료>

외교통상부(www.mofat.go.kr)

‘한일정상회담, 경제 등 협력증진 방안 논의’ (연합뉴스 09.01.12), ‘한일 정상회담, 독도·과거사 잠시 접고’ (세계일보 09.01.12) 등 국내 주요언론보도 내용 종합